

결명자(決明子)

- 식물명 : 긴강남자
- 학명 : Cassia tora Linn¹⁸
- 과명 : 콩과 (Leguminosae)
- 별명 (이명, 속명) : 결명자, 강남두 (江南豆), 양명 (羊明), 양각 (羊角)
- 생약명 : 결명자 (決明子), 초결명 (草決明)
- 분포지 : 전국에서 재배
- 번식법 : 4월 말 ~ 5월 초순
- 꽃 피는 시기 : 7~8월
- 수확기 : 가을
- 꽃말 : 광명, 수줍음
- 용도 : 약용, 음료수
- 약용 : 고혈압 예방, 변비, 신경통, 시력보호, 당뇨병, 심장병, 간염, 황근

식물의 생김새와 특징

결명자는 북아메리카 원산의 일년 초로서 키는 1~1.5m가 되며 온 몸에 잔털이 나 있다. 잎은 3~4쌍의 겹꽃 겹잎으로 되어 있는데, 소엽은 달걀꼴이고 끝이 동특하며 7~8월에 노란 색의 나비 모양의 작은 꽃이 핀다. 꽃은 황색으로 일개화이며 2송이 정도 피며 꽃잎은 5장으로 긴 달걀 모양처럼 생겼다.

꽃이 진 다음, 기늘고 긴 강낭콩 모양으로 굵은 콩 꼬투리가 10cm 정도의 길이로 생기는데, 그 속에는 황갈색으로 육질형 모양을 한 종자가 들어 있다.

황갈색의 종자를 완전히 말려서 약 용과 차용(茶用)으로 쓰고 있으며 이 종자를 건조한 것이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결명자인데, 달여서 마시면 눈병에 효과가 있다는 의미에서 '결명자'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거의 비슷한 석결명의 종자는 헝과로 납작하다.

재배법

서리가 끝나는 4월 중순~하순에 폭 75cm의 얇은 이랑을 만들어, 부엽토나 복합비료를 밑거름으로 뿌리고 아 주심기를 한다. 밭아 후 30cm 간격으로 수야한다.

그 외에 특별한 손발 필요는 없고, 가을에 꼬투리가 숙성하는 것부터 그 루채로 배어 건조한다.

소량이면 나무로 두드러서 종자만을 모아 2~3일간 햇볕에 말려서 보존한다.

늦가을이 되고 꼬투리의 씨가 충분히 여물었을 때 포기 전부를 베어 낸다. 베어 낸 것은 며칠 동안 말린 후 명석에 털어서 씨를 정선하고, 다시 일주일쯤 햇볕에 말린 후 서늘한 곳에 저장한다. 10a당 180~200kg이 생산된다.

토양 : 토양은 별로 기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잘 자란다. 과습하거나 그늘진 곳, 너무 비옥한 곳에서는 줄기와 잎만 무성하게 자라는 반면, 결실기가 늦어져 잘 여물지 않으므로 수량이 감소한다.

종자처리 : 종자는 껍질이 단단하므로 그대로 파종하면 수분 침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종자를 맑은 물에

24시간 이상 담갔다가 물기를 제거하고 파종한다.

파종방법 : 45cm 간격으로 물이 잘 빠지도록 밭을 타고 25cm 간격으로 3~4개씩 2~3cm 깊이로 점무림한 후 흙을 덮는다.

시비방법 : 토양 검사를 하여 적정량의 질소, 인산, 칼리 및 퇴비를 혼합하여 발갈이 전에 고르게 뿌리고 웃거름은 8월 초순에 질소와 칼리를 조금씩 준다. 척박한 땅이나 모래 땅에서는 시비량을 증가시켜 주며 산성 토양에서는 밭거름을 주기 2주 전성 석회를 넣고 같이하였다가 파종하도록 유도한다.

관리법 : 본잎이 4~5장 되었을 때 2포기 이상 되는 것은 솎아 주고 키가 15cm 정도 자라면 1포기만 남기고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북주기를 한다. 가끔씩이면 제초제를 쓰지 않고 손으로 김매기를 2~3회 실시한다.

병충해 예방법과 방제

병해 : 여름 장마철에 줄기 윗부분이 검게 썩는 병이 발생하여 수량을 감소시킨다. 연작을 피하고 통풍이 잘 되며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질소 시비량을 줄여 재배하면 방제할 수 있다.

충해 : 생육 초반기에 뿌리를 갇아 먹는 거세미, 굽벙이, 땅강아지 등에 의한 피해가 있다. 완숙된 피비를 사용하고 발생이 심한 경우에는 에토프인제나 흡입성제를 살포하고 있으나 등록고시되어 있지 않다. 완숙된 피비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초의 효능과 한방 및 민간요법

◆ **사용 부위**
결명자는 종자를 약재나 식용으로 이용한다.

◆ **채취와 가공**
결명자 씨가 익을 무렵에 풀을 베어 햇볕에 말린 뒤 씨를 털어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햇볕에 건조한다. 볶아서도 사용한다.



◆ 성분

결명자 씨에는 에모딘(emodin), 옵투신(obtusin), 비타민 C, 비타민 A의 전구물질인 카로틴(carotin), 캄페롤(kaempferol), 각종 필수 지방산과 안화작용을 나타내는 안트라퀴논(anthraquinone) 유도체가 들어 있다.

◆ 약용

체내의 신진대사와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눈을 밝게 해주며 장의 연동을 촉진시켜서 변비를 치료해 준다. 각종 부인병, 고혈압에 효능이 있고 방광염, 임질, 심장병, 당뇨병, 각기, 산전 산후의 각종 질환 등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

◆ 용법

햇볕에 말려 볶은 씨를 하루 10~15g씩 물에 달여서 2~3번에 나누어 장기 복용하면 좋다.

◆ 결명자의 다양한 효능 및 민간요법

결명자에는 안화작용을 하는 안트라퀴논(anthraquinone) 유도체가 함유되어 있어서 변비에 효과가 있으며 대황과 함께 끓여 마시거나 꿀을 넣어 마시면 변비 치료에 더 좋다. 또한 위장병 완화와 간 해독에 도움을 주며 과음한 후에 진하게 끓인 결명자차를 마시고 자면 숙취가 풀린다. 야맹증이나 결막염, 백내장, 녹내장 등의 안과 질환에 차로 마셔도 좋다. 신장병에 결명자차를 마시면 수분이 대변과 함께 많이 배설되기 때문에 신장의 부담을 가볍게 하여 깨끗한 신장이 회복되도록 도와준다.

결명자는 항균작용, 항진균작용이 있어서 구강염이 생겼을 때 결명자물 진하게 끓인 것을 2~3분간 3~4회

머금고 있으면 효과적이다. 결명자 5~10g에 3컵의 물을 붓고 끓이면 터져 속이 나올 때까지 달인 즙을 입 속

에 2~3분 정도 머금고 있다가 뱉는다. 이것을 여러 번 되풀이하면 구강염의 조기 치료에 효과를 볼 수 있다.

저자 소개



김형중

남부대학교 한방약재개발학과 졸업

- 1974.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이사
- 1986. 전남생약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취임, (현재 재임중)
- 1993. 전남 농민교육원 약초재배 강사 위촉
- 1995. 전라남도 농업발전심의회 위원 위촉
- 1996. 농림부장관 표창
- 1997. 전라남도 도지사 표창
- 2001. 시민법인 우리약초살리기운동본부 이사 선임
- 2003. 전라남도 농업인 대상 수상 (유등기공 부문)
- 2005.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친환경강양작물 교육 강사 위촉
- 2007. 전라남도 농업발전심의회 위원 위촉
- 2008. 전국 생약농업협동조합 연합회 회장 취임
- 2009. 국민포장 수상

피부감동 프리미엄케어
고품격 항산화 피부를 위한 올바른 스킨케어의 첫단계
바르샤 퓨어비타민
두가지만으로! 기초케어, 완벽하게.



바르샤 퓨어비타민 C 앰플에센스
VARSHA PURE VITAMIN C
AMPOULE ESSENCE
30ml

바르샤 퓨어비타민 C
바이오 하이-모이스트 크림
VARSHA PURE VITAMIN C
BIO HI-MOIST CREAM
57ml



VARSHA
PURE VITAMIN

